

# 흥미진진 공주

## 이 시대의 작가 임동식 화백

공주의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사유의 경치를 화폭에 담은  
임동식 화백은 도심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여기 잠시 몸과 마음을 쉬어가게나.”



2021 공주 이시대의 작가전



임동식  
RIM DONG SIK  
사유의 경치 III

2021 04 13 TUE 04 25

주최 기관 (주)공주문화재단 후원 안동문화재단

의정 활동 소식

## 공주시의회, 6월 실시 행정사무감사 대비 역량강화 교육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실재’를 주제로 질문 기법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

공주시의회(의장 이종운)가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시의회는 5월 7일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6월 행정사무감사 대비 질문 기법 및 의회운영 전반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실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했다.

의원들은 누수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보겠다는 열의를 갖고 강의에 참여했다.

이종운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의 개별역량 향상은 공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역량강화 교육



## 의정토론회서 김종서 선생의 가치 높이고 선양 방안 토론

‘절재 김종서 선생의 삶과 역사적 가치 조명’ 주제로 열려

시의회는 5월 18일 시청 집현실에서 ‘절재 김종서 선생의 삶과 역사적 가치 조명’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장을 비롯해 발제자로 이해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토론자로 이일주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전병철 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 강석광 공주시 문화복지국장 등이 참여했다.

해당 토론회는 조선 왕조 오백년 총의 표상으로 기억되는 김종서 선생의 삶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인으로서의 삶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김종서 선생의 역사적 가치 연구 및 조사로 업적을 선양하고 관련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코자 진행됐다.

이종운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절재 김종서 선생의 업적과 강직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처음 마련한 자리”라고 운을 떼 후, “서학자·군인·정치가로서 일생을 살아오신 절재 김종서 선생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종운 의장은 지난 3월 김종서 선생 선양사업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의정토론회

## 시민예술공간에서 천아트 전시회 열려

초보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천아트의 세계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데다 누구나 쉽게 생활 속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천아트’ 전시회가 개최 중이다.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의회 시민예술공간에서 이문자 개인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되어 천아트의 세계에 푹 빠질 수 있다.

천아트는 광목이나 직물소재의 여러가지 다양한 반제품에 야생화나 식물을 예쁘게 그리는 것으로 그림에 소질 없는 초보자도 멋진 실력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예술 분야이며 또한 연구적으로 쓸 수 있어 손수건, 다포, 방석, 쿠션 등으로 제작해 실생활에 활용도가 높다.

이종운 의장은 “광목천 위에 들녘의 야생화 꽃들을 화폭 위에 추억을 담아 봄날에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온다”며 “많은 시민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말고 전시장을 찾아 그간 못했던 문화 향유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예술공간

기고문

### 국외에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생각한다



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

문화재는 우리 선조들과 영혼, 삶이 녹아 있는 역사적 창조물이다. 시대적 의식과 현장감을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는 문화재가 외침으로 인해 훼손과 유실로 이어졌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자본주의 열강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침탈하는 제국주의 시대의 뼈아픈 산물이 바로 문화재 유실인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임진왜란, 근대의 신미·병인양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기에 수많은 문화재가 파괴, 유실, 반출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으로 21개국 610개처 19만 3천136점의 반출된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일본 8만 1천889점, 미국 5만 3천141점, 중국 1만 2천984점을 비롯해 독일·영국·프랑스 순이었다. 제국주의 열강들이 영토침략뿐 아니라 문화, 경제, 정치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통계라 할 수 있다. 이런 제국주의 속에서 오랜 시간을 걸쳐 민족의 역사와 혼을 담은 문화재가 제자리를 잃고 말았다.

문화재 반환에 관한 법이 20세기 중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지만, 국제법이 그 자체로 한계가 있어 문화재 출처국가로 반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허나 정부와 민간단체는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교섭 때 맺은 문화재 협정에서 ‘인도’라는 용어로 합의돼 다음해 5월 1천326점의 문화재를 되돌려 받았고, 20여년 동안의 노력을 기울여 2012년 5월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의궤를 반환받았다.

문화의 도시인 공주 역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백제 문화재에 대한 현황 파악과 보존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국가 간 상호교류와 문화재 조사를 통해 과거 문화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우리의 관심과 노력으로 어디서든 백제문화의 가치를 보존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